



|                             |           |     |
|-----------------------------|-----------|-----|
|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           | 다함께 |
| *찬양과경배 Songs of Praise      |           | 다함께 |
| 기도 Prayer                   |           | 유영환 |
| *주님의기도 Lord's Prayer        |           | 다함께 |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 롬8:1-2    | 다함께 |
| 말씀선포 Sermon                 | 주여 누구십니까? | 유형선 |
| *찬양 Praise                  |           | 다함께 |
| *봉헌&축도 Offering&Benediction |           | 유형선 |

\*가 있는 순서에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헌금은 예배당 입구에 들어오면서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주일대표기도**

|         |        |
|---------|--------|
| 10월 29일 | 11월 5일 |
| 최빅토리아   | 강민선    |

**예배시간안내**

|      |                          |
|------|--------------------------|
| 주일예배 | 오후 2시                    |
| 아침묵상 | (화-금) 매일 오전 6시 (Youtube) |

**공동기도제목**

- 말씀 안에서 - 부활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 나라와 민족 -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 교회와 선교 - 교회가 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

온라인 주일설교 : 복음의 능력

본문 : 사61:1-3

사람이 멋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잘 나갈 때는 멋있어 보이기 쉽습니다. 겸손하기 어려워져서 그렇지 멋있어 보이기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 멋있음이 내면의 아름다움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보다는 외면적인 요소에 맞춰져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멋있는 인생이란 멋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 멋있게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이 멋 있다는 건 세상적 기준에서 찾는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과 기준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이란 한마디로 죽으면 산다라는 가치입니다.

한 마디로 십자가의 정신이란 사랑과 용서와 관용과 자비와 긍휼의 시선을 말합니다. 그게 멋있게 사는 길이라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와 반대되는 길로 걷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보면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멋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누가 가난한 자입니까? 성경에서 가난이란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가난이란 영적 가난함입니다. 마음의 궁핍함입니다. 성경에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부요함이란 물질이나 명예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이런 가난함을 이야기하면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돈이 최고고, 명예가 최고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의 시선이란 바보같은 생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도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독교를 폄박했습니다. 그러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첫 마디는 "나는 네가 폄박하는 예수다"였습니다. 그 말은 네가 그토록 하찮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그 복음, 그 십자가의 정신이 살아있다. 진짜다. 그게 진짜라는 건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이 엎드려졌습니다. 그 뒤로 바울은 평생 심령이 가난한 채로 살았습니다. 그 가난함이 진정한 부요함을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그게 멋있게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둘째로, 마음이 상한 자들과 이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간을 바라봅니다. 그러니 정죄라는 안경을 벗게 되고 비로소 사랑과 긍휼의 안경을 쓰게 됩니다. 이처럼 복음의 안경을 쓰면 그들의 약함이 보입니다. 이해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따뜻해 집니다.

복음은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 냅니다. 그 여유가 믿는 자들의 실력이 고 평가입니다. 복음 안에서 멋진 인생 살아가시길 소원합니다.